

# 거리 악사들 여름밤 선율... '낭만 목포' 수놓는다



목포에 '버스킹'(busking=거리 공연)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예향 목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평화광장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광장, 유달산 입구, 목포역 광장 등이 대표적인 버스킹 명소다. 이곳에서 '버스커'(busker=거리의 악사)를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재충전시켜주는 문화의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름밤 수놓은 거리의 악사들 =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좋아서 한다. 색소폰 선율이 여름의 열기보다 뜨겁다. 낭만과 감미로운 추억에 눈과 귀도 즐겁다. 관객이 있으면 더 신나고 없어도 그만이다. 무대도 따로 없다. 아무데나 걸터앉으면 객석이다. 재능 기부로 행복을 나누는다는 보람이면 족하다. 목포에서 가장 먼저 거리공연 씨앗을 뿌린 버스커 장형진(61)씨. 갯바위 인근에서 라이브 클럽을 운영하는 그는 평화광장 2호 매점 옆에서 5년째 감성 멜로디를 들려주고 있다. 지난 6월부터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우천 시를 제외하고 매일 오후 7~9시까지 연주한다. 주말 관광객들이 많아 '필'이 쫓기면 거리음악에 중독된 관객의 눈동자를 쉬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한다. "지친 일상, 문화로 위로받자"는 게 그가 버스킹을 시작한 동기다. 정해놓은 레퍼토리도 없고 장르 구분도 없다. 신청곡에 맞춰 즉흥 연주로 꾸며진다. 그는 "연주가 끝날 때 악보를 외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거리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성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수준급 연주를 공짜로 듣는 게 미안하다는 반응들이다. 그래서 연주가 계속될수록 박수소리가 더 커진다.

## 문화회관·평화광장 등서 버스킹 음악으로 행복 나누기 공연 활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 삶의 활력

지난 2010년부터 버스킹을 계속해오면서 팬들도 생겨났다. 3년 전 40대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해 자살하기 위해 우연히 목포를 찾았다가 연주를 듣고 의욕을 되찾아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온다는 일화를 들려줬다. 또한 우울증 환자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찾아와 호전된 사례도 있다. 그는 "음악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힘들고 바쁘더라도 팬들 때문에 연주를 게을리할 수 없다"며 웃는다. 또 문화예술회관 광장 야외무대에서는 전종섭(65)씨가 매일 버스킹을 펼친다. '사랑나눔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회장 정복남) 회원인 그는 재능기부를 위해 거리공연을 시작했다. 주로 그날, 그날 관객들의 기호에 따라 계절에 맞는 곡이나 옛 추억이 서린 곡들을 선사한다. '유달산 꽃 축제'나 '목포 항구축제' 등에도 참가해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야외 공연이 어려운 겨울철 등에는 양로원과 무료급식소 등을 찾아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표출한다.

그는 "노후를 쥐미 없이 허무하게 늙어가는 선·후배를 너무 많이 봤다"며 "버스킹은 제2의 인생 도약대"라고 예찬론을 편다. 정복남 회장은 "21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이랜드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평화광장, 목포역 광장, 여객선 터미널 등지에서 4차례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잠깐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장 절실=버스커들은 한결같이 "관공서에서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장 씨는 "세상살이가 어렵고 인심이 각박하다 보니 가끔 소음 민원을 제기할 땐 서글퍼진다"라며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지역정서상 아직 버스킹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맘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소망한다. 현재 여수시는 '버스킹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인지도 있는 버스커 1300여 명을 초청,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부산 해운대구도 버스킹을 살리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 중이다. 이에 "목포시도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사진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평화광장 버스커 장형진 씨



문화예술회관 버스커 전종섭씨 (오른쪽)와 정복남 회장.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24~28일 열린 '목포 항구축제'에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 '악취 집단민원' 목포 도축장 시 외곽 대양동으로 이전

대단위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해 악취와 소음으로 집단민원을 불러 일으켰던 목포 도축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한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성식품이 시 보상금 41억원에 30억원을 보태 시 외곽인 대양동 산 82-6번지 일대 1만3535㎡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목포 도축장을 새로 지어 옮겨간다. 이 업체는 도축설비를 수입해 설치하고 축산물 위해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HACCP(위해요소 집중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다음달 3일 도축장이 개장하면 하루 소 100마리, 돼지 1000마리까지 도축할 수 있다. 기존 도축장 인근은 공업 지역이었으나 지난 2000년 6월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며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이후 도축장을 이전해 달라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르자 목포시가 지난 10년간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한·중·일 대학생 동아리 외교캠프 60여명 참가 4~7일 개최

'2015 한·중·일 대학생 동아리 외교캠프'가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목포시에서 열린다. 올해 4회째인 '한·중·일 대학생 캠프'는 외교부의 '한·중·일 청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하나로 3개국 대학(원)생 6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은 ▲3국 협력 경험담 공유 및 아이디어 토론 ▲대학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3국 비정형대화 ▲국적을 초월해서 팀워크를 다지는 팀별 미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청렴 조직문화 만들기 박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종호)이 부장·부패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산강사업단은 공사의 '레드 휘슬' 익명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일 자체 청렴퀴즈와 부서 윤리소식지 발행, 청렴실천 서약서 작성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는 윤리경영과 반부패를 실천하기 위해 '헬프라인'(Help line=익명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박종호 단장은 "공사의 윤리 경영과 청렴 활동이 형식적인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청렴 문화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해상케이블카 사실상 민자 추진...목포시 지분 40% 참여

2차 공청회...총사업비 586억 투입  
목포시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방식이 사실상 민자유치로 결정됐다. 또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목포시가 40%의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사업비 586억원 가운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250억 원을 목포시가 투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만큼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0일 목포 해양수산복합센터 대강당에서 시민, 사회·환경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기상조'(반대 측)와 '지역경제 활성화'(찬성 측)가 맞선 가운데 해상케이블카 운영방식과 경제성, 목포시의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광형 기술사(용역사 대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객이 6개월 만에 100만명에 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근거를 제시하고, 2017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129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케이블카 운영에 필요한 상부 승강장(유달산 소요정) 782㎡와 하부승강장(고하도) 530㎡

만을 조성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태관 목포문화재단 대표는 관광객 줄임 현상에 의한 빨대효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대표는 국내 케이블카 대부분이 수익이 없다는 운영 결과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케이블카 13곳은 수익이 없다"면서 민자 유치의 경우 특히 소지가 많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구 한국교통대 교수는 "목포시는 관광산업 성장 동력 축(軸)이 없다"면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케이블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는 서해안고속도로와 KTX, 무안공항 등 교통시스템이 발달돼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목포타워와 병행한다면 지역경제·원도심 상권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옥 목포시 관광경제수신국장은 "시가 적자를 보전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전혀 없다. 수익은 민간업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차 공청회를 거친 용역은 목포시의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10개월, 실시계획 인·허가에만 18개월이 걸리는 등 2년 넘게 소요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앞으로의 금융

## 광주문화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b>아파트 담보대출 (특별금리상당)</b>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b>80%</b>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b>상가 담보대출</b>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b>상가대출+신용대출</b>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b>지역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b>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b>7천만원</b> 까지 가능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b>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b> 사업운영자금 <b>최고 2천만원</b> 창업자금 <b>최고 5천만원</b> 생계자금 <b>최고 1천만원</b>	<b>지역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b>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b>최대 2천만원</b>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b>최대 3천만원</b> 운영자금대출 / <b>최대 한도 7천만원</b>	<b>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b> 전세 보증금 최고 <b>80%</b> 까지 가능	운암지점 528-4150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